

II.a 원자력

2010년 12월에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을 2010년까지 18,716MW, 2015년까지 24,516MW, 2020년까지 31,516MW, 2024년까지 35,916 MW 증가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. 그러나 원전을 3,000MW 이상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설비용량 증가에 따른 원자력 비중은 4 차 계획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다. 자료는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활용해 작성했다.

Level 1

2009년 총 원전 설비 용량은 18GW로 이후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고 가정, 폐기되는 원전으로 인하여 2050년에는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거의 없다고 가정

Level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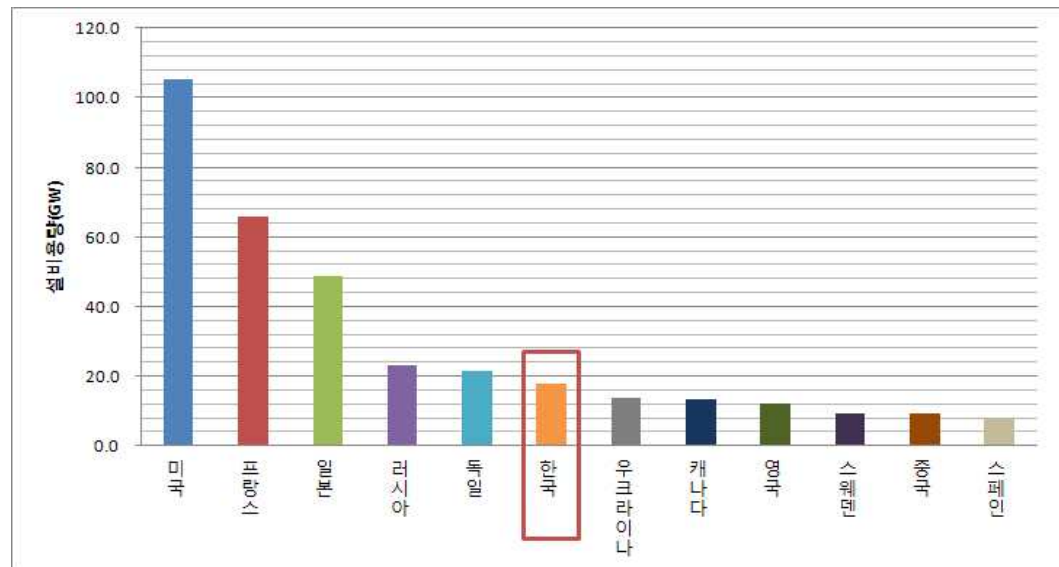
2050년 원전 설비 용량을 32.4GW를 가동한다고 가정하고 설비운영기간이 종료된 발전소는 폐기함.

Level 3

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33.7GW보급하고 이후 추가적인 보급으로 2050년에 50.5GW를 가동한다고 가정.

Level 4

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49.2GW를 보급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보급하여 2050년에 81.4GW를 가동한다고 가정



<그림 1> 2010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